

Exploring Institutions

연구소 탐방

포르투갈어권 지역연구의 중심, 루소폰문화연구소

김한철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릴 무렵,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루소폰문화연구소(Institute for Lusophone Cultural Studies)에 다녀왔다. 서대문역과 충정로역 사이에 위치한 건물 17층에 자리 잡고 있는 연구소는 남산이 훤히 보이는 환상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정재민 소장과의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는 문학박사이고 브라질 전문가이다. 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를 졸업하고 브라질 상파울루 주립 캄피나스대학교(Unicamp) 언어연구원(IEL)에서 브라질문학, 문학사 및 문학이론을 전공했다. 한국외대 대학원에서는 비교문학을 전공했으며, 브라질 향토주의 소설가 주제 린스 두 헤구(José Lins do Rego)의 대표작 『꺼진 불』(Fogo Morto)의 서사 기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브라질에는 17년 동안 체류하면서 신문 편집, 번역, 통역, 언어문화 강의 등 다양한 일을 했다. KBS 프로그램 현지기획, CBS 라디오 통신원, 주간동아 리포터,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연구소의 개소 준비는 작년 가을부터 했지만 올해 3월 7일 정식 등록하여 연구소를 오픈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해서 처음에는 임시 사무실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있는 충정로로 이전해서 연구소를 운영해오고 있다.

1. '루소폰' 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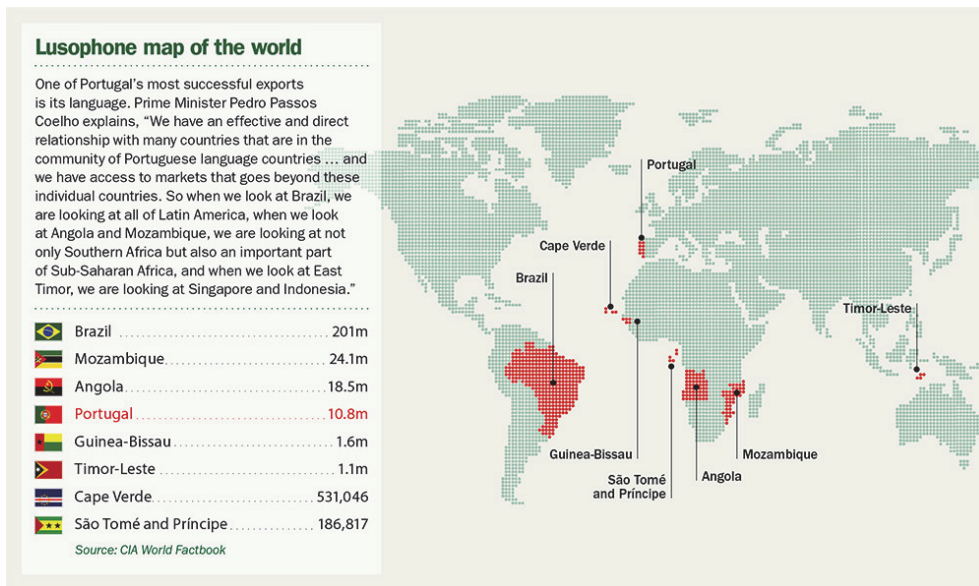


루소폰문화연구소 정재민 소장 (출처: 필자 제공)

지역연구에서 ‘라틴아메리카’, ‘중남미’, ‘이베로아메리카’ 등의 명칭에 익숙한 연구자 및 일반인에게 루소폰이란 이름은 매우 생소해 보인다. 그래서 먼저 루소폰이란 용어에 대한 설명을 부탁했다.

로마시대에는 현재의 포르투갈 지역을 루시타니아(lusitania)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유래해서 포르투갈을 일컫는 형용사로 ‘루소’(luso)를 흔히 사용합니다. ‘폰’(phone)은 언어, 말을 뜻하죠. 그러니까 루소폰(lusophone)은 포르투갈어권 지역이나 포르투갈어권 사람을 지칭하는 합성어입니다. 프랑스어권 지역이나 사람을 ‘프랑코폰’(francophone)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루소폰문화연구소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와 지역에 관한 연구를 지향한다고 하였다. 루소폰 국가들은 포어권국가공동체(CPLP: Comunidade dos Países da Língua Portuguesa)를 구성하고 있는데 회원국은 포르투갈, 브라질, 앙골라, 모잠비크, 카보베르데, 상투메프린시페, 기네비사우, 동티모르, 적도기니 등 모두 9개국에 인구는 총 2억 7000만 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포르투갈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중국의 마카오와 인도의 고아 지역도 넓게 보면 루소폰문화권으로 볼 수 있다.



포르투갈어권 지역의 총 9개국 중 적도기니를 제외한 8개국을 표기한 지도 (출처: <http://polyglotlegend.blogspot.kr>)

연구소를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했다. 이에 대해 정소장은 루소폰 국가와 지역을 모두 아우르고 주변 지역과의 지정학적 관계까지 고려하는 통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앞서 열거한 루소폰 국가들은 유럽,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4개 대륙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루소폰 지역에 관한 연구는 포르투갈과 브라질, 특히 우리나라와 무역 교류가 많은 브라질에 관한 연구에 집중돼 있는 게 현실이다. 루소폰 국가와 지역이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해 있다는 사실은 세계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 상당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언어권 안에서 다양한 지역과 세계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이다.

2. 동일한 언어권 국가의 정체성과 다양성 연구는 매우 중요

언어 문화적 영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정체성과 다양성이라는 문제를 연구 소재로 다룰 수 있다는 건 흥미로운 사실이다. 예를 들면, 400년 가까이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아온 브라질은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원주민, 아프리카인, 유럽이민 등의 이질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오늘날 브라질 문화의 정체성을 만들었다. 앙골라, 모잠비크, 카보베르데, 상투메프린시페, 기네비사우 등 아프리카의 루소폰 국가의 경우도 그렇다. 이들은 오랜 식민지 전쟁 시기를 거쳐 1970년대에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다. 동질성도 있지만 각 나라마다 고유한 정체성 또한 존재한다. 동티모르는 또 다른 경우로, 인도네시아와의 오랜 전쟁과 갈등 끝에 2002년 신생독립국이 되었다. 아시아에 위치하기에 지리적으로 포르투갈과의 동질성을 다른 루소폰 국가보다 일찍 상실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독립과 함께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면서 포어권국가공동체에 가입하는 등 루소폰문화권이라는 동일성으로 재편입되었다. 이처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루소폰 국가 사이에도 정체성과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주변 문화와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루소폰 국가가 전 세계 각 대륙에 분포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루소폰 문화를 연구한다는 것은 결국 세계 문화를 관련지어 탐구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루소폰문화연구소가 표방하는 연구목표와 방법론에 대하여도 정소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해당 국가와 지역에 대한 문화연구는 역사와 뿌리에 대한 천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루소폰문화연구소가 과거라는 근원을 연구하여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소폰문화연구라고 할 때 문화연구의 개념은 문화에만 제한하지 않고 좀 더 융복합적이고 포용적인 연구방법론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연구대상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와의 관련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연구목표에 대한 일관성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3. 브라질은 개혁과 건축 통해 부패 척결과 관리 효율성 제고 필요

요즘 언론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곳 중 하나인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의 상황과 미래 전망을 논할 때 절대 빼 놓을 수 없는 지역이다. 브라질은 루소폰 국가 중 유일하게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인구 2



정재민 소장과의 인터뷰 (출처: 필자 제공)

억 1000만 명, 세계 경제 8위의 국가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지역이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일찍부터 지카바이러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소추 등으로 브라질에 관해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뉴스가 줄지어 보도되었다. 올림픽이야 지나면 잊혀질 단기성 스포츠 이벤트이겠지만 브라질이 겪고 있는 문제는 워낙 구조적인 것이어서 쉽게 해결될 조짐이 보이질 않는다. 사실 요즘 불거져 나오고 있는 정치 사회적 문제는 오래된 부패와 관리부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이 경제 불황이라는 촉매 작용을 통해 동시에 폭발해 버린 상황이다. 역사상 유례없이 2014년 월드컵에 이어 2016년 올림픽 개최까지 세계 2대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성공했을 때만 하더라도 브라질의 미래는 운통 장밋빛이었다. 석유, 철광석, 커피, 오렌지, 대두 등 브라질 원자재 수출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정부, 공기업, 민간부문 할 것 없이 돈이 넘쳐흘렀다. 관리 소홀과 부재로 발생한 비용은 가격 인상분이 메워주고도 남았다. 이런 가운데 공공사업에 뒷돈 거래가 관례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이 발주 단계에서부터 문제에 봉착하기 일쑤였다. 한국기업이 대다수 참여하면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상파울루-리우 고속철 사업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월드컵 이전에 완공하겠다고 약속한 브라질 정

부는 사업후보 컨소시엄에 터무니없이 무리한 조건을 제시했고,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기대수익 감소를 예측한 외국 기업이 모두 입찰을 포기하면서 공사 계획 자체가 무산돼버렸다. 월드컵 경기장 중 일부는 폐막한 뒤에도 마무리 공사를 해야 했다. 올림픽에서도 같은 경우가 반복됐다. 이 모두 관리부재와 부패 때문이다. 현재 브라질 행정부는 미세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가운데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결과에 관계없이 차기 행정부는 대대적인 개혁과 긴축을 통해 부패 척결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원자재 가격하락을 비롯한 대외적 여건이 조금만 부정적으로 작용해도 또 다시 경제위기가 반복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와 실업자 증가 등 국내 정치 불안으로 이어질 게 당연하다. 이런 다소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법과 제도 시스템이 견고하고 내수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치 안정을 되찾고 경제 또한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4. 올바른 포한사전 편찬사업 진행 중

루소폰문화연구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몇 가지 프로젝트가 있다. 그 가운데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것은 ‘올바른 포르투갈-한국어사전’(가제) 편찬사업이다. 사전편찬 사업은 정소장이 포르투갈어 강의 진행 중에 학생들에게서 자주 들었던 터무니없는 어휘 풀이를 계기로 구상하게 되었다. 실제로 기초 분석을 통해 기존 종이 사전과 온라인 포한사전에 심각한 문제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루소폰문화연구소 차원에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외국어사전은 해당 외국어 교육과 문화 이해를 위한 초석이자 나침반인데, 초석이 잘못되면 그 위에 짓고자 하는 건물이 튼튼히 바로 설 수 없을 테고 나침반이 고장 나 있다면 나가고자 하는 학문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최근 한국 포르투갈-브라질학회 학술대회에서 ‘포한사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라는 제목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에서 이용자와 편

찬자의 관점에서 현행 포한사전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먼저 이용자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포한사전 이용자의 사용 실태와 목적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방안에 실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설문조사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이용자가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온라인 앱 포한사전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네이버 포르투갈어사전과 다음 포르투갈어사전이었고 결과물을 해당 포털사이트 사전사업 담당자와 개선방안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여 추후 편찬 또는 개정작업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대외적으로 한국글로벌마케터양성협회, 울산대 LINK 사업단과 함께 루소폰지역전문가 교육관련 협업을 진행 중에 있고, 한국연구재단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기획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루소폰 문화를 우리나라에 제대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각 나라의 주요 명저와 문학작품을 번역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연구소 이름으로 출판사업 허가를 받기도 하였다. 아울러 2016 리우올림픽을 계기로 언론 방송에 루소폰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올림픽 기간 중에 교통방송을 통해 올림픽 개최지인 리우데자네이루와 브라질을 소개한 바 있다. 또한 네이버포스트를 통해 브라질을 시작으로 루소폰 국가와 지역 문화를 널리 알리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작년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통해 국제사회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2030개발의제를 채택하여 수원국과 공여국의 상생 발전과 성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소의 중장기 플랜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연구소는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과 관련해서 지원대상국에 관한 현지 조사 및 타당성 연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루소폰 국가와 지역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루소폰 국가 진출과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자문하고 협업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현지 문화와 실정에 적절한 수요 분석과 예측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대학, 연구기관 및 정부와 공동연구, 전문가 양성 교육, 정보 및 인력교류 등 한국과 루소폰 국가 및 지역의 상호 이해와 공동 발전을 제고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소장은 연구소를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시작한 것도 최근의 일이어서 아직 미숙한 점이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연구 프로젝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한데 제한된 연구소 인력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소장의 열의와 노력에서 느낄 수 있었다. 루소폰문화연구소는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했지만 가까운 미래에 루소폰 지역연구의 중심으로 맹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루소폰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연구소, 기업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이 필요하다.

김한철 — 한국의대 국제사회교육원 포르투갈어 책임교수